

51. 성령에 매인 사람

신앙고백

찬 송 : “성령의 은사를” (찬송가 196장)

기 도 : 말은이

말 씬 : 사도행전 20장 17-38절

말씀묵상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단했을 때 말렸습니다. 그곳에 가면 많은 고난이 있을 것임을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에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로 흔들림 없이 성령에 매인 자로 살았습니다. 온갖 고난을 가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세력 앞에서도 나약해지거나 갈등하지 않고 굳건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처럼 성령에 매인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1.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갑니다(18-21).

원래 바울은 교만했고 무자비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 직접 나설 정도로 급한 성격이었지요. 그랬던 그가 전혀 다른 인격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 성령에 매인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성품을 버리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갔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에 매인 자가 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성령에 매여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2. 다가오는 미래를 담대하게 맞이합니다(22-23).

예루살렘으로 가는 결단은 엄청난 모험을 감수하고 죽음까지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성령에 매여 있던 그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탁월 일을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성령에 이면 누구든 바울처럼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3.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24-27).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생명까지 내놓을 각오를 했고, 실제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맺는말.

성령은 사명을 자각시켜 줄 뿐 아니라 감당할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역시 성령에 매인 자가 되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자각하고, 사명을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합니다.

말씀적용

성령에 매여 사는 자신을 상상하고, 이를 위해 지금 실천해야 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둔전소식

둔전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세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 주일헌금

이번 주 주일헌금으로 인도네시아선교(김영생 선교사)를 후원합니다.

2. 예배안내

교회는 좌석수의 30%까지 예배 인원이 허용되어, 150명까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수요일예배와 금요기도회, 주일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성탄절 예배 안내

성탄절 예배는 25일(토) 오전 11시에 대면+온라인예배로 드립니다.

4. 2022년 교회 봉사자 모집

2022년 교회학교 교사(어린이부, 청소년부)와 방송실을 섬겨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헌신하실 분들은 교역자들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5. 2022년 교회요람 준비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가족사항)가 달라진 분들은 목자 혹은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감사

각 부서는 감사 자료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성탄선물나누기

성탄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성탄선물(개당 5만원)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예정입니다.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8. 2022년 임명식

다음 주일(26일)에 2022년 서리집사, 교사 임명식이 있습니다. 신임서리집사와 교사 임명장은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 교우소식

현물 : 손미자집사 가정에서 故 강병순집사 장례를 은혜로 마치신 후 떡을 헌물하셨습니다.

결혼 : 김강혁 군, 한서영 양 (이명희집사 아들, 16목장)

오늘 낮 12시 10분 더컨벤션 송파문정 12층 그랜드볼룸

: 이희진 군, 박윤희 양 (박희군집사·이혜영권사 딸, 9목장)

25일(토) 오후 1시 강남조선팰리스 West동 The Great Hall 3층

둔전교회를섬기는이들

창립1904년

담임 목사 : 임창세

협동목사 : 윤성민

원로장로 : 김효영 이용준

부목사 : 천광우 정진영

지 휘 자 : 이영준

교육전도사 : 신새벽

반 주 자 : 임귀희 임미리 임정임

김성혜 이하림

The ninth Year for Vision 120
for Mother Church in Sung Nam

은혜를 나누는 교회 (고후 6:1-2)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한국기독교장로회
1904
둔전교회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Rok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61-1

☎031)754-8600 Fax 031)757-9191 목양실☎ 031)751-7230

www.doonjeon.kr

